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1 호

2019 년 4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및 SDGs 세레모니 (3/26)
2. 2019 SDGs 우수이행 사례집 발간 (3/26)
3. SDGs 산업별 이행 가이드 <교통·물류> 간담회 안내 (4/12)
4.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 운영계획 안내
5.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CSR Academy 운영계획 안내
6. <부산·울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5)
7. <대구·경북>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6)

■ 본부 소식

1.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새 이사 선임

2. 기업-투자자, 비즈니스 전략과 금융시장 전반에 SDGs 통합 촉구
3. 중국기업 최고경영자들, 일대일로를 위한 책임경영을 선언하다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0- 불평등 완화
2. [SDGs 솔루션] 옷으로 바다를 청소하는 방법
3. [Global Goals in Action] 이베르드롤라(Iberdrola)

■ UNGC 회원 뉴스

1. 아모레퍼시픽, UN총회 주간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출간
2. 예보, 인권경영위원회 발족..."차별 없는 일터 조성"
3. 해준·KT 등 참여하는 전력중개사업자 협의회 결성
4. SK이노베이션, '녹색 혁신'으로 미래산업 답 찾는다

■ CSR 뉴스

1. [UNGC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 -下]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나? '누구도 소외 안 되게' 기업 역할의 버전업
2.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6. UNGC 로고 사용정책
7.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및 SDGs 세레모니 (3/26)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가 140 여 명의 회원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 월 26 일(화)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본회의 안건 의결뿐만 아니라 반기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특별강연, SDG 지지 CEO 서약 및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세레모니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한국협회는 회원사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신연회비 정책 도입을 위한 본부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회원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그룹 및 신규 담당자 교육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 2019 총회 의제 및 전기 회의록 채택 △이사 일부 변경 의결 △2018 사업, 결산, 감사 보고 및 의결 △ 2019 사업 계획, 예산안, 중장기 계획 보고 및 의결 △ 신연회비 정책 보고 및 의결 △ 정관 일부 개정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은 이를 청취한 후 승인하였습니다.

이사변경과 관련하여 △ DGB 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부회장이 선임되었고,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 △SK 네트워크 최신원 회장 △(주)부방 권춘택 고문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손희걸 특별보좌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이 연임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신연회비 정책 도입 첫해를 맞아 회원사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강화 △UNGC 담당자 대상 아카데미 도입을 통해 CSR/지속가능성 이슈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 확대 △기업과 인권, 반부패, SDGs 등 이슈별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치 및 운영 △지방소재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DGs, SRI 등 지속가능성 국내외 동향 공유 및 툴,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고도화 및 전문화 도모 △ 국회, 정부, 언론사,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이슈별 아젠다 국내 확산 및 협회 위상 제고 등이 있습니다.



본회의에 이어 반기문 제 8 대 유엔사무총장이자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동안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엔글로벌콤팩트를 확장하고 주류화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회원 여러분께서도 UNGC 의 일원이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기업들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때이다. 2030 년까지 이제 4,200 여일 남았으며, 우리에게 Plan B 또는 Planet B 는 없다.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UNGC 중심으로 기업시민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 30 개의 회원 CEO 가 기업의 경영전략 및 업(業)과 연계하여 글로벌 목표인 SDGs 를 이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2019 년 SDGs 지지 선언 기업은 △국민연금공단 △두산중공업 △롯데(주) △롯데홈쇼핑 △아모레퍼시픽 △예금보험공사 △유한킴벌리 △삼덕통상 △서울특별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항공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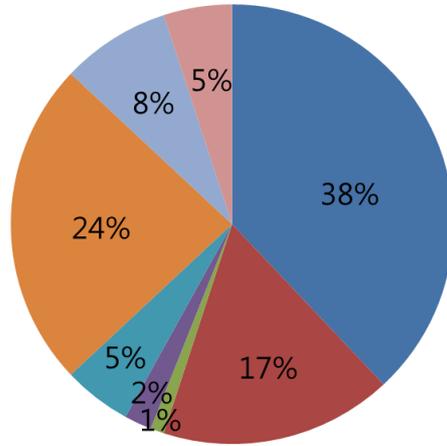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KDN △해양환경공단 △BGF(주)
 △BGF 리테일 △CJ 대한통운 △DGB 금융그룹 △GS 칼텍스 △KEB 하나은행 △KOTRA
 △KT △LG 전자 △MYSC △NH 투자증권 등 30 곳입니다. 그 중 15 개 회원사에서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2016 년, 2017 년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되는 '2019 SDG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런칭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동 사례집에는 국내 23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속가능경영이행 전략 및 현황, 사례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회원은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DGB 금융지주 △KEB 하나은행 △KOTRA △KT △LG 전자 △LG 화학 △NH 투자증권 △SK 이노베이션 △POSCO △국민연금공단 △두산중공업 △서울특별시 △아모레퍼시픽 △예금보험공사 △유한킴벌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동 행사에는 18 개 회원사에서 참석하였습니다.



■ 온라인 ■ 경제지 ■ 방송 ■ 스포츠지
■ 일간지 ■ 전문지 ■ 지역지 ■ 통신사



주요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3-27	"지구촌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업이 힘쓰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과 기관...
2019-03-26	롯데그룹, 지속가능발전 체계 갖춘다
2019-03-26	[SR 지배구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지속가능발전(SDGs) 지지 서약식
2019-03-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지속가능발전목표 동참 서약식 개최
2019-03-26	반기문 전 사무총장, "기업 SDGs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2019-03-26	[포토] 특별강연하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
2019-03-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SDGs 지지 CEO 서약식 개최 및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발간
2019-03-27	유엔글로벌콤팩트 우수사례로 포스코 기업시민활동 소개

2019-04-01	(사회책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사례는?
------------	-------------------------------------------------

[2019 주요 사업 계획](#)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더보기](#)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더보기](#)

[UNGC 한국협회 CSR 아카데미 더보기](#)

[UNGC 한국협회 실무그룹 운영 계획 더보기](#)

[\[원문보기\]](#)

2. 2019 SDGs 우수이행 사례집 발간 (3/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6 년, 2017 년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노력을 담은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을 발간하고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3 월 26 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례집 런칭 세레모니를 가졌습니다.



2015 년 9 월 SDGs 가 채택되어 범지구적인 개발 과제로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은 이래, 유엔,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 활동으로 SDGs 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 월, 우리 정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있겠지만, K-SDGs는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국형 발전목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그 동안 산업계를 대표하여 K-SDGs 수립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작업반에도 참여해 왔으며, 정부의 SDGs 이행 추진 노력에 발맞춰 SDGs 달성을 위해 힘쓰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발간된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정: 2019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은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23 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SDGs와 연계한 경영 비전, 핵심 전략 및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례집에는 SDGs 달성을 위한 30 개 기업 및 기관의 CEO 지지 서약 내용을 담아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살린 SDGs 행동 계획 및 기업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참여 기업>

아울러,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책임감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 중인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여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국내 민간부문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는 한편,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SDGs 연계 보고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및 SDGs 를 통한 또 다른 시장 기회 및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활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본 사례집의 영문본은 오는 5 월 발간될 예정이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 및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UN Climate Change Summit 2019', 유엔총회기간의 'High-Level Political Forum 2019' 등에서 유엔, 각국 정부, 국내외 기업 및 시민사회 대표들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SDGs 달성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이 우리 기업들의 행보와 활동을 여러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 김경민 과장

02-749-2150

kmkim@globalcompact.kr

[\[원문보기\]](#)

3. SDGs 산업별 이행 가이드 <교통·물류> 간담회 안내 (4/12)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교통·물류> 간담회

2030년까지의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유엔,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은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회투자, 사회공헌, 민관협력 등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KPMG는 6개 분야의 SDGs 산업별 매트릭스를 공동 발간하였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추가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교통>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발간물은 산업군과 관련된 협력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SDGs 각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교통·물류산업의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산업 내 SDGs 전략 및 실질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 일시: 2019. 4. 12 (금) 16시 ~ 18시
- 장소: UNGC 한국협회 사무처 (시청역)
- 대상: 교통·물류 산업군 기업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15명 선착순) *Invitation Only
- * <SDGs Compass>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교통> 제공

시 간	프로그램
16: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소개 - 교통/물류 분야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소개 -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 소개 - 질의 응답
17: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기업 및 기관의 SDGs 사례 및 활동 공유

■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시리즈



* 문 의: 광 글 과장 | 주임연구원

T. 02-749-2182 E. geul@globalcompact.kr

[\[초청장 바로가기\]](#)

[\[참가신청 바로가기\]](#)

[\[원문보기\]](#)

4.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 운영계획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9. 4 월부터 회원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 및 동료 학습 플랫폼으로서 「SDGs」, 「기업과 인권」, 「반부패」 실무그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실무그룹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실무자께서는 오는 4월 17일(수)까지 아래의 링크 또는 별도 문의를 통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무그룹(Working Group) 운영 계획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및 동료 학습 플랫폼으로서 우리 기업의 UNGC 10대 원칙 및 SDGs 기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업과 인권, 반부패 실무그룹을 시작하며, 추후 더 많은 이슈로 확대하고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실무그룹 운영 방안

- 각 실무그룹은 리드기업, UNGC 연구팀, 이슈 전문가 등 3인이 공동리더를 맡아 운영
 - ※ 실무그룹 별 기업당 2인 참여 가능, CSR/지속가능경영 부서 및 유관 부서 참여
-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를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구성
- 연 4~5회 실무그룹 미팅 진행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 필요 (일정은 실무그룹별 탄력적 운영 예정)
- 실무그룹 내 그룹 활동을 통한 활발한 논의 장려 및 실용적인 결과물(발간물, 톨가이드라인 등) 도출

■ 프로그램(안)



「2019년 4월 실무그룹 Kick-off」

실무그룹별 운영 및 주제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SDGs 실무그룹>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반부패 실무그룹>
<p>우리 기업의 SDGs 이행 및 기여 확대를 목적으로 SDGs 지식 플랫폼을 형성하고 선진 사례 발굴 및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SDGs 이행 동향 공유 • UNGC 톨 활용을 통한 기업의 SDGs 이행 현황 진단 • 유엔 총회 SDGs 이행 시사점 연구 및 2019년도 주요 SDGs 발간물 스터디 • 실무그룹 SDGs 트렌드 리포트 발간 	<p>기업과 인권 국제동향에 대한 이해 및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주요 과제 및 해결책을 함께 모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권경영 동향 공유 • 기업별 인권경영 이행 현황 및 도전과제 공유 (체크리스트 활용 등) • UNGC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연구발간물 공유 및 스터디 •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제네바) 주요 의제 및 시사점 공유 	<p>최근 반부패 법·정책 강화 동향 하에서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반부패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법, 정책, 규제 관련 동향 공유 • 반부패 이슈별 컨텐츠 소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실사 질문지 작성 • 공급망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세계 반부패의 날(12/9) 기념 반부패 공동노력 캠페인

* 일정은 실무그룹별로 상이하며 사무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49/50, gckorea@globalcompact.kr

[\[실무그룹 운영계획 다운받기\]](#)

[\[사전 설문 바로가기\]](#)

[\[원문보기\]](#)

5.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CSR Academy 운영계획 안내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제 17기 UNGC CSR Academy 운영 계획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 신규 담당자 및 CSR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 17기 <UNGC CSR Academy> 참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카데미 수업을 통한 기대사항

- 글로벌 기준인 UNGC 10대 원칙 및 최근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파악
- UNGC 본부/한국협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CSR 역량강화 기회 확보
- UNGC 회원 기업 간의 우수 사례 공유, 네트워킹 플랫폼 참여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2019년 5월~6월 (총 3회, 6개 세션)
- 장 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 주 제: UNGC&SDGs,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 참가비: 10만원 (석식 제공)
- 등록방법: 참석신청서 기입 후 이메일 회신(gckorea@globalcompact.kr)
 ※ 4개 세션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프로그램 구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차: 5월 10일 (금)

주제	시간		프로그램
세션 1	14:00 - 14:15	'15	인사말 및 소개
	14:15 - 14:45	'30	UNGC 개요
	14:45 - 15:15	'30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
	15:15 - 15:30	'15	Q&A 및 휴식
UNGC&SDGs	15:30 - 16:00	'30	SDGs와 비즈니스 전략 - SDGs Compass
	16:00 - 17:00	'60	SDGs 응용하기 (그룹활동)
세션 2	17:00 - 17:30	'30	그룹발표
	17:30 - 17:45	'15	토의 및 Wrap up
	17:45 - 18:45	'60	네트워킹 및 친목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50



2차: 5월 24일 (금)

주제	시간	프로그램
인권·노동 공급망 환경	14:00 - 14:40	'40 국내외 기업과 인권 동향 및 사례
	14:40 - 15:00	'20 인권경영 실사 가이드 (공급망 관리) - UNGC 인권경영 가이드북
	15:00 - 15:30	'30 인권경영 자가진단 결과 공유
	15:30 - 15:45	'15 Q&A 및 휴식
	15:45 - 16:25	'40 기후 변화 동향 및 기업의 기후 행동
	16:25 - 17:15	'50 UNGC 회원사 사례 발표
	17:15 - 17:45	'30 토의 및 Wrap up
	17:45 - 18:45	'60 네트워킹 및 친목

3차: 6월 14일 (금)

주제	시간	프로그램
반부패 ESG	14:00 - 14:30	'30 국내외 반부패 동향 소개
	14:30 - 15:10	'40 기업 반부패 시스템 소개 Red Flag 파악 및 대응
	15:10 - 15:45	'35 기업 반부패 시스템 자가진단 결과 공유
	15:45 - 16:00	'15 Q&A 및 휴식
	16:00 - 16:40	'40 UNGC 회원사 사례 발표
	16:40 - 17:30	'50 ESG 공시 및 Business Reporting의 중요성
	17:30 - 17:45	'15 토의 및 Wrap up
	17:45 - 18:45	'60 네트워킹 및 친목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50

[\[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운받기\]](#)

[\[참석 신청서 다운받기\]](#)

[\[원문보기\]](#)

6. <부산·울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부산·울산 소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비재무적 정보 공시 기준 강화, 사회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공공조달에 있어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성평등, 환경, 협력, 근로자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최신 동향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해택·가입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부산·울산 소재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기존 UNGC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주최: 부산경제진흥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부산상공회의소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14:00 - 16:30

장소: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 (연산동 본원)

대상: 회원사, UNGC 활동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30'	등 록
14:00 - 14:15	15'	인 사 말 -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15 - 14:2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20 - 14:50	30'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14:50 - 15:20	30'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15:20 - 15:40	20'	휴 식
15:40 - 16:10	30'	UNGC 한국협회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16:10 - 17:00	50'	부산·울산 소재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17:00 - 17:30	30'	질의응답 및 폐회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문 의: 임애화 과장 02-749-2150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7. <대구·경북>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안내 (4/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대구·경북 소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비재무적 정보 공시 기준 강화, 사회적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공공조달에 있어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성평등, 환경 협력, 근로자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적책임경영 최신 동향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혜택·가입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대구 경북 소재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기존 UNGC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주최: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DGB금융지주

일시: 2019년 4월 26일(금) 14:00-17:00

장소: DGB대구은행 제2본점 대회의실

대상: 회원사, UNGC 활동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30' 등 록
14:00 - 14:15	15' 인 사 말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14:15 - 14:2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20 - 14:50	30'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14:50 - 15:20	30'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15:20 - 15:40	20' 휴 식
15:40 - 16:10	30' UNGC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16:10 - 17:00	50' 대구소재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 DGB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17:00 - 17:30	30' 질의응답 및 폐회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문 의: 임애화 과장 02-749-2150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본부 소식

1.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새 이사 선임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 유엔사무총장은 3 월 19 일 두 명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Dr. 무심비 칸요로(Musimbi Kanyoro) 세계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 CEO 와 아난드 마힌드라(Anand Mahindra) 마힌드라 그룹 회장이 20 명이 넘는 이사와 유엔사무총장이 의장으로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두 분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합류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칸요로 박사와 마힌드라 회장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은 2030 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목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칸요로 박사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위한 지도력과 자선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운동가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녀는 현재 성 평등을 위한 세계 최고 공공 지원 재단 중 하나인 세계여성기금의 CEO 로 재직 중 입니다. 2015 년 포브스지는 칸요로 박사를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10 인의 여성 중 한 명으로 꼽았으며, 2016 년에는 "재창조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40 세 이상 여성"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칸요로 박사는 성 정책을 변화시키는 Top 100 인 중 한 명이자 지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9 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이자 자동차 회사 마힌드라 & 마힌드라의 이사장인 마힌드라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자동차 및 농업에서부터 IT 및 항공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로 산업 분야를 확장해왔습니다. 뉴욕 외교위원회의 국제 자문단과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 국제 자문단과 같이 세계적인 기관에서 근무해온 마힌드라 회장은 현재 인베스트 인디아(Invest India), 국가투자 진흥 기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은 2016 년 배런의 세계 30 대 CEO 리스트와 2014 년 포춘지의 세계 50 대 리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6 년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국가 질서에 기여하는 명예의 군단 기사(Knight in the National Order of the Legion of Honour)'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위한 이니셔티브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전략과 정책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사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지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는 비급여, 명예직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4 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는 아젠다 2030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원문보기\]](#)

2. 기업-투자자, 비즈니스 전략과 금융시장 전반에 SDGs 통합 촉구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사회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그리고 글로벌콤팩트 브라질협회의 공동 보도자료입니다.

민간부문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자본 유치에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관계자들과 투자자, 정부 및 유엔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상파울로 B3 본부에서 발족된 SDGs 투자 연례 포럼은 SDGs 와 연계된 투자 과제 및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자발적 국별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와 관련 국가 계획 위에 구축되는 SDGs 투자 포럼 행사 시리즈는 민간 부문에 SDGs 기회를 인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가 SDG 를 전략에 내재화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에는 유엔,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00 명 이상 참가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브라질에서의 SDGs 투자 기회 및 도전에 대해 알아보며 B3 주식거래소에서의 타종 행사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포럼의 주요 메시지는 SDGs 는 확실한 금융기회이며, 우리는 비즈니스 전략 및 금융 시장에서 SDGs 의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임베브(Imbev)의 CFO 인 페르난도 테넨바움(Fernando Tennenbaum)은 'SDGs 에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SDGs 와 기업 사이에는 상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직 시너지 효과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빈 파워(Gavin Power), 핼코(PIMCO) 지속가능 발전 책임자는 '핼코에서는 SDGs 채권을 위한 시장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정부가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SDGs 관련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힐스(Denise Hills), 반코 이타우(Banco Itau), 지속가능성 및 포괄적 비즈니스 총괄은 "많은 브라질 기업들은 SDGs 를 영향 시스템의 일부로 적용하고,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기 때문에 해당 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회를 넓히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투자자를 유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기업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하면서, SDGs 투자 포럼은 SDGs 에 가치 있는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전략 및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SDGs 통합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비즈니스와 투자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SDGs 투자 포럼 (SDG Investment Forum)은 민간 부문이 SDGs 에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력적인 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오나 레이놀즈(Fiona Reynolds) PRI CEO 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SDGs 를 발전시키고, 이해자에게 재정적 이익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의 SDGs 투자 포럼은 UNGC, PRI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브라질협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경제사회국(UN DESA),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 핼코(PIMCO), 반코 이타우(Itau) 및 상파울로 B3 본부가 후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UNGC, PRI 은 다양한 지역에서 SDGs 투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들은 UNGC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3. 중국기업 최고경영자들, 일대일로를 위한 책임경영을 선언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SASAC)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CEO 라운드테이블에 40 명이 넘는 중국 및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이 모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중국 SASAC 이 주최한 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중국 및 글로벌 기업 CEO 들

‘일대일로를 위한 책임경영, SDGs 을 위한 윈-윈 협력(Responsible Business for Belt and Road Initiative, Win-win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기업 CEO 들과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대표자들이 주요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 달성의 해법 모색 기회가 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이 날 연설에서 일대일로의 성공과 유엔 SDGs 의 달성에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샤오 야칭 (Xiao Yaqing) SASAC 회장은 SDGs 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SASAC 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샤오 야칭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환경 보호, 지역고용 촉진, 그리고 지역 공동체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업을 위해 중국 기업들을 한데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CEO 들 중 다수는 원칙 추구하고 이익 추구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두 목표가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 파트너들과 협업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에서 CEO 들은 SDGs 원칙을 이행함과 동시에 공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CEO 라운드테이블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전 세계적 프로젝트인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의 일부로, SDGs 달성에 재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0 – 불평등 완화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Goal 10 비즈니스 리더십의 불평등 완화

평등은 안정 · 번영 ·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요소입니다. 오늘날 경제 성장의 결과물은 상위계층에게 불평등하리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소득불평등은 1990 년에서 2010 년 사이에 11 % 증가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평균소득은 약간 줄어든 반면 몇몇 개발도상국의 평균소득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성, 소수인종 및 원주민 등은 여전히 비즈니스 소유권, 기업 의사 결정, 임금, 고용, 및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세대 간 불평등 문제 또한 중요한 도전과제이며,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수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간 경제가치 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평등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사회보호 조치 수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과 자원으로 정부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평등을 위한 정책 및 관행을 구현함으로써 자사나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취약 · 소외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및 이행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1

보다 평등한 환경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경제가치 분배를 평가하고 정책 및 관행을 구현합니다.

우수사례

- ▶ 협동 소매기업 A 는 경제가치 분배를 이해하기 위해 GRI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민으로부터의 육류, 농산물 및 유제품 구매가 크게 늘리고 회원 및 지역사회에 가치를 돌려주는 멤버십 제도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세금 관행과 투명성 준수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 ▶ 금융 기업 B 는 자격있는 외부당사자에게 객관적인 성 임금 격차 감사를 맡기고 공개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며, 동등한 가치의 일자리가 동등하게 보상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 ▶ 소비재 기업 C 는 근로자 간의 경제가치 분배를 평가 해외 공장 중 하나를 NGO 가 연구 조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분배의 중심에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 ▶ 초콜릿 기업 D 의 소유권 구조는 소규모 농가의 공동 소유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익을 얻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최저 공정 무역 가격을 보장합니다.
- ▶ 스칸디나비아 기업 E 는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어 보상이 경험도와 기여도에 비례하도록 보장합니다.
- ▶ 식품 기업 F 는 사업 전반에 걸쳐 직원들의 생산, 자원, 소득, 자율성 및 리더십과 같은 5 가지 역량강화 영역을 추적하여 평등 증진 조치가 효과적인지 평가합니다. 불평등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강력한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BUSINESS ACTION 2

국가 차원의 사회보호 조치 수립 및 확대를 지원합니다.

우수사례

- ▶ 세무 자문 기업 A 는 납세자, 학계, 언론, 정부, 국제기구, 정치인, NGO 및 세무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국제 흐름에 맞춰 책임있는 세금 관리에 대해 고민합니다.
- ▶ 비영리 조직 B 는 책임있는 세무 관행 및 세금 투명성을 인증하는 비영리조직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정부에게 정책의제 핵심에 책임있는 세금을 부과 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이니셔티브의 사명을 적극 추진합니다.
- ▶ 소비재 기업 C 는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생활 임금을 준수하고, 모든 직원을 위한 단체 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 의류 기업 D 는 섬유 및 의류 공급망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 소매 업체, 제조업체 및 노동조합과 글로벌 프레임워크 계약에 참여합니다.
- ▶ 소비재 기업 E 은 고용 관행을 검토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임시 또는 단기 계약 근로자를 고용하며 사회 복지 규정을 준수합니다.



BUSINESS ACTION 3

자사 및 공급망 운영 전반에 걸쳐 평등을 위한 정책 및 관행을 구현합니다.

우수사례

- ▶ 컨설팅펌 A 는 공급업체의 임금 차별 및 부당한 대우 사례를 파악하고 시정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 ▶ 대형 회계기업 B 는 LGBT 근로자가 직장에서 직면하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후원, 자원 봉사 및 이사회 참여를 통해 LGBT 조직을 지원합니다.
- ▶ 전기 유틸리티 기업 C 는 NGO 와 파트너십을 맺고 반문맹 여성들이 전기가 부족한 마을에서 작은 광전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 글로벌 음료 기업 D 는 교육, 지역사회 행사, 네트워킹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등 기회를 보장합니다.



BUSINESS ACTION 4

취약 · 소외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우수사례

- 스타트업 기업 A 는 저가의 여성용품을 개발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월경 기간에도 여성 활동 비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복잡한 도시에 자사의 제품을 배포하기 위해 노점상을 고용합니다.
- 은행 B 는 마이크로 대출을 설계하여 방글라데시 농촌지역에 제공합니다.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ID 카드 보급률을 높여 고객 신원을 쉽게 확인하고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비자 상품 기업 C 는 여름에 도시 빈곤층이 음식 문제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기능을 갖춘 저가 냉장고를 설계합니다.
- 브라질 은행 D 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강 위에서 이동하는 선박에 지사를 운영합니다. 지역사회 방문 기간 동안 직원들은 금융 교육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회의를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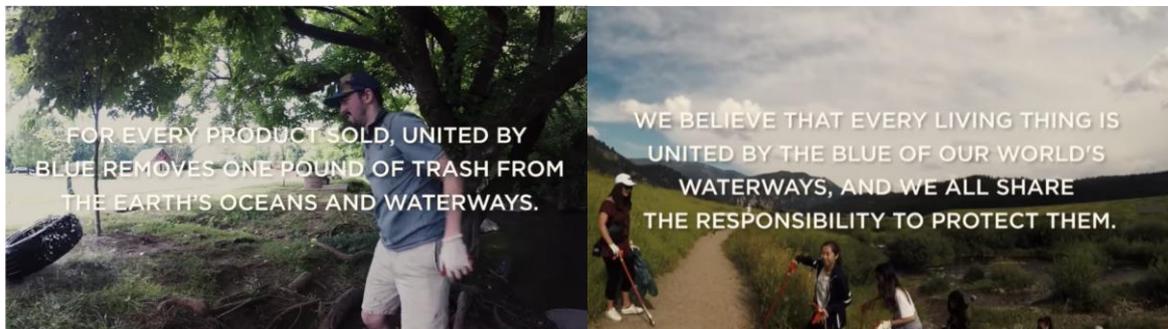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옷으로 바다를 청소하는 방법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United by Blue)’는 자사의 의류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플라스틱 오염 물질 1 파운드를 바다에서 제거하고 재활용 제품으로부터 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는 고객이 더욱 깨끗한 해양 환경을 위해 기여하면서 자연을 탐험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아웃도어 웨어를 만듭니다. 그들은 제품 판매량에 맞추어 청소 봉사단을 꾸립니. 2018 년에만 2000 명이 넘는 지역 사회 자원 봉사자들이 ‘유나이티드 오브 블루’와 함께 23 개 미국 주 전역의 청소 활동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는 특별히 필라델피아의 불법 투기장 청소를 목표로 했는데, 자원 봉사자들은 스쿨킬(Schuylkill) 강에서 400 개 이상의 타이어, 건설 폐기물과 스티로폼 조각을 치웠습니다. 유나이티드 오브 블루는 필라델피아 수자원부와 협력하여 향후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활동 외에도, 이 회사의 의류 및 캠핑 장비는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지속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보트의 돛에서 나온 립스톱(ripstop)이란 직물을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폴리에스테르를 만들며, 목장주에 의해 버려지는 들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기농 면화와 자라는데 물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텐셀 같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Why you should care

매년 800 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수로로 흘러 들어갑니다. 보통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수 세기가 걸리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사용된 후 오랫동안 해양 자원을 오염시킵니다. 바다로 가는 플라스틱은 쓰레기 소용돌이를 생성해왔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레이트 퍼시픽 쓰레기 패치(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텍사스 면적에 두 배 가량입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많은 의류 브랜드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합성 플라스틱을 사용하지만,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는 버려진 자원을 사용합니다.



해양 생물

플라스틱으로부터 나온 오염은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합니다. 플라스틱 조각들이 사용될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에 해가 됩니다. 현재까지 680 톤의 쓰레기가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원문보기\]](#)

3. [Global Goals in Action]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영상 보기\]](#)

저는 이베르드롤라(Iberdrola)의 혁신 및 지속가능성 부서 총괄, 오스틴 델가도(Austin Delgado)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단순한 환경적 이슈가 아닌 포괄적인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가치에 기반하여, 이베르드롤라는 인권, 노동, 및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베르드롤라의 지속가능성 컨셉입니다. 글로벌 목표들은 우리의 전략과 연관이 깊습니다. 글로벌 목표는 회사가 미래의 생존을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투자자 커뮤니티는 그 간 탄소 발자국 감축 전략으로 이베르드롤라를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이베르드롤라는 2017년 녹색채권을 발행한 세계 선두기업이기도 합니다. 민간부문은 처음으로 2030년 의제를 위해 공공부문과 협력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주요 혜택 중 하나는 파트너들과 서로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를 통해 우리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 자산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고민하고 서로 공유하는 한편,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실제로 어떻게 글로벌 아젠다를 지원하는지 알릴 수 있습니다. 이베르드롤라에게 2030년은 신재생에너지 주도의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 뉴스

1. 아모레퍼시픽, UN총회 주간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 출간



- 25일 아모레퍼시픽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아모레퍼시픽의 시선으로 담아낸 UN총회 주간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의 출간함.
- 매년 가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총회 주간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진행 상황을 두고 토론이 벌어지며, '뷰티 인사이드'는 2018 뉴욕 UN총회 주간의 모습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향한 이야기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번 호는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초점을 맞춰 ▲Fashion ▲Space ▲Eat 3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윤리적 패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혁명을 주도하는 디자이너, 3D 프린팅으로 개발도상국에 집을 지어주는 창업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안하는 셰프 등 뉴욕 현지의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음.
- 특집 ▲Youth 편에서는 최근 UN이 2030세대에 주목하는 이유와 함께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UN총회 참석 소식이 수록됨.

[쿠키뉴스](#)

2. 예보, 인권경영위원회 발족..."차별 없는 일터 조성"



예금보험공사는 20일 유엔 산하기구 인권전문가, 인권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준기(왼쪽 네 번째) 예보 부사장(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내·외부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보 제공)

- 20일 예금보험공사는 유엔 산하기구 인권전문가와 인권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총 7명의 인권경영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업무 특성과 정부 정책 등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했음.
- 이 계획에는 차별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인권경영 사회적 확산 선도,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의 3대 전략목표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12개 세부 실행과제가 포함됨.
- 예금보험공사는 이 계획을 토대로 취약근로자, 정규직 전환직원, 여성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 및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함.

[이데일리](#)

3. 해준·KT 등 참여하는 전력중개사업자 협의회 결성

해준·KT 등 참여하는 전력중개사업자 협의회 결성

👤 오철기자 | 🕒 승인 2019.03.29 09:42

| 4월 중 발족 예정

[한국에너지신문] 해준, KT,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벽산파워가 참여하는 전력중개사업자 협의회가 결성된다.

- 해준, KT,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벽산파워 등 2016 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선정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력중개사업자 협의회가 결성될 예정임.
- 이들 5 개 업체는 가상발전소 운영, 발전량 예측 등 중개사업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관련 정책 제안에 참여해 옴.
- 협의회 결성에 참여하는 포스코에너지의 김우성 팀장은 국내에서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력중개사업자들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김종규 해준 최고기술경영자는 해외와 달리 각종 규제와 과도한 독점체제로 혁신적인 시도가 매우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전력중개사업 활성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협의회는 4 월 중 발족식을 통해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전력중개사업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원사 모집에 나설 예정임.

[한국에너지신문](#)

4. [저탄소사회] SK이노베이션, '녹색 혁신'으로 미래산업 답 찾는다



사진=SK이노베이션

- SK 이노베이션은 폐열 회수, 고효율 설비 교체, 에너지 관리기법 도입 등 공정 과정의 탄소 저감, '에너지사용지수(Energy Intensity Index·EII)'를 활용한 에너지 사용 현황 관리, 신재생에너지 도입, 그리고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 등 '녹색 혁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서 김준 SK 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계열 회사가 '환경 이니셔티브'라는 공통된 전략 방향 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린 이노베이션(녹색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등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서울파이낸스](#)

CSR 뉴스

1. [UNGC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 -下]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나?

HOME » 오피니언

[UNGC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 -下]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나?



소완 UNGC 한국협회 연구원 POSTED ON 2019년 3월 27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글로벌 기업 인권경영 트렌드 <下>](#)

“
‘지속가능한 기업’,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

- ‘지속가능한 기업’,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 2019 년 국내 대기업 CEO 들의 신년사 주요 공통 키워드다.
-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인권경영,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기조와 더불어 각국의 기업과 인권 법제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인권을 경영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
- LG 전자, 롯데, KT, SK 이노베이션, IBK 기업은행 등 주요 기업에서는 인권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등을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인권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얼마나,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9500 개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했다.
- 92%의 기업이 인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17%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 기업의 90%가 인권경영이 기업의 이윤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밝혔다.

[더 나은미래](#)

2.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

반기문 '미세먼지기구' 위원장직 수락

노영민 文대통령 제의 공식 전달 中과 공조 기대... 협치 인사 평가도

입력 2019-03-17 19:36



반기문(오른쪽)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지난 8 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조직을 건의했고, 위원장으로 반 전 총장을 추천함.
-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며,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했음.
-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범국가 기구는 정당과 산업계, 시민사회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말함.
- 기구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향후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국민일보](#)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3 월 18 일부터 4 월 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 입니다.

-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협회
- 씨사이드코리아

2. COP/COE 제출회원

3 월 18 일부터 4 월 1 일까지 5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중부발전
- 밀알심장재단
- 바이오제네틱스
- 한국국토정보공사
- 광주도시관리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4 월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분기 및 2/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4 월 둘째주 까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소 완 연구원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